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무 단장(010-7131-1338), 조수정 과장(010-4603-9624)

'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제3차 협상 개최'

- '14.1.20~1.24,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-

□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이하 RCEP*) **제3차 협상이 '14.1.20(월)~1.24(금)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**에서 개최될 예정임

* RCEP 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ASEAN 10개국 및 한·중·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·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

○ 금번 협상에 **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**로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

□ RCEP은 역내국가간 **포괄적이고 높은 수준(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)의 FTA 체결을 목표**로 추진되고 있음

○ '12.1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, 제1차 협상('13.5월, 브루나이), 장관회의('13.8월, 브루나이), 제2차 협상('13.9월, 호주)이 개최되어 상품·서비스·투자의 자유화방식과 경쟁, 분쟁해결 등 규범분야가 논의되었음

□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**상품·서비스·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**과 함께 **규범·협력분야(경쟁, 지재권, 분쟁해결, 경제협력 등)가 논의**될 예정임

○ 상품·서비스·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, **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(협상방식, 협상목표 등)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**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

○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**규범·협력 분야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**과 **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회의체 구성방안** 등도 논의될 예정

□ 한국은 금번 제3차 협상에서 상품·서비스·투자 분야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, **'경쟁(competiton)' 분야 발표** 등을 통해 **RCEP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기여할 예정임**

○ 아울러, 한중일 3국이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, 금번 RCEP 협상을 계기로 **한중일 FTA와 RCEP 협상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3국간 공조도 강화**해 나갈 계획임

* 붙임 : RCEP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조수정 과장(☎ 010-4603-96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	RCEP 개요

□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○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 미-중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ASEAN의 대응으로 RCEP 추진

○ RCEP을 통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교역 및 투자기반 구축 도모
→ RCEP 참여국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(중국, ASEAN, 일본 등)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RCEP 체결시 안정적 교역·투자 기반 확보

○ 원산지 기준 통일, 경쟁·지재권과 같은 규범 정착 등 지역경제 통합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
→ 복수의 양자 FTA 체결의 부정적 효과(예 : 스파게티 볼 효과*) 최소화
* 각기 다른 FTA 체결국들과 동일상품 교역시 다른 기준 적용으로 비효율 발생

□ 추진 경과

○ '12.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('15년 타결목표)

○ '13.5월 제1차 협상(브루나이) : 협상 메커니즘* 합의
* 무역협상위원회(TNC) 및 3개 분야(상품, 서비스, 투자) 작업반

○ '13.9월 제2차 협상(호주) : 상품 양허방식 및 협상 범위 논의

□ 추진 방향

○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이익 확보

- 상품, 서비스, 투자 및 여타 규범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체가 될 수 있도록 협상 참여

○ RCEP 참여국간 진행중인 FT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